광주대 만학도 장영애씨 '요리대회 5관왕' 화제

식품영양학과 3학년 편입해 재학 중
장류 전통성 유지…기능성 소스 개발
"몸·마음 치유하는 음식 대접하고파"

광주대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만학도' 장영애(63·3학년 편입)씨가 최근 한 달 사이 3개 요리대회에서 5개 상을 휩쓸어 화제다.

18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25일 열린 제7회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에서 백김치와 조선간장떡갈비, 디저트 떡을 출품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금상),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최우수상) 등 3관왕에 올랐다.

장류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능성 응용 소스 개발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앞서 장씨는 같은 달 23일 열린 2025 Korea International Culinary & Pastry Competition 한식요리 부문에서도 '더 광주 한식밥상'으로 전시경연 금메달을 수상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지난달 초에는 같은 학과 김은진(3학년) 학생과 함께 '죽순자매'라는 팀명으로 담양 대나무축제 죽순요리 경연에 참가해 참신성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죽순순대' 요리로 대상을 받았다.

장영애씨는 "30여년 한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이런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됐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학에서 음식 이론을 공부해 좋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주대 식품영양학과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활용과 전통 식문화의 현대화, 글로벌 식품 트렌드 융합을 목표로 한 실용 교육을 강화해 차세대 식품산업 전문가를 지속 배출할 계획이다. /김다이 기자

광주대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장영애씨가 최근 한 달 사이 3개 요리대회에서 5개 상을 휩쓸어 화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Korea International Culinary & Pastry Competition 한식요리 부문에서 장씨가 선보인 '더 광주 한식밥상'. 〈광주대학교 제공〉

'송천 달집태우기' 김재철 선생, 전남 무형유산 명예 보유자 지정

40여년 세시풍속 명맥…후계자 양성도

40여년간 송천 달집태우기의 명맥을 지켜온 김재철(95·사진) 선생이 전남 무형유산 명예 보유자로 지정됐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무형유산 '송천 달집태우기'의 예능보유자 김재철 선생이 전남 무형유산 명예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송천 달집태우기.

송천 달집태우기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대나무와 생솔가지 등을 이용해 만든 달집에 불을 놓아 한 해의 액운을 불사르고 풍년을 기원하는 월등면 송천리 송산마을의 세시풍속 행사다.

여순 사건과 산업화로 많은 민속놀이가 중단된 전남 동부 지역에서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의미가 더욱 크다.

김재철 선생은 송산마을 출신으로 1987년 6월 마을 단위 민속단체인 송천달집태우기보존회를 조직해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달집태우기의 명맥을 계승했다.

1987년 전남도문화제(제16회), 198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제29회)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송천 달집태우기가 1994년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통무형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후계자 양성과 장학생 지원에도 힘써왔다.

전남도 국가유산위원회는 고령으로 전수교육 일선에서 물러난 김재철 선생을 예우하고자 그간의 전승 활동 업적을 심사해 명예 보유자로 지정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송천 달집태우기의 유산 가치에 관심을 갖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해 온 김재철 선생에게 감사하다"며 "미래세대에도 잘 전승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수어로 세상을 잇다' 영암서 전남농아인대회 성료

전남도는 18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농아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17회 전남 농아인 대회가 열려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권익 증진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영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아인협회 전남협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우승희 영암군수,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장애인단체장, 농아인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전남 농아인대회는 6월3일 농아인의 날을 기념해 정체성 확립과 자립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톡!톡! 수어로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1부 기념식은 소림학교 꿈자람 무용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농아인 권리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격려사 등 공식 행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로 열린 35회 수어문화 예술제에는 13개 팀이 참가해 연극, 노래 등 다양한 수어공연을 선보이며 수어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농아인에게 자긍심과 재미를 선사했다.

김영록 지사는 "보다 촘촘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여상, 학생 창의력 챔피언스 지역 예선 전원 수상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18일 "'2025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스 광주시 지역 예선'에서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광주발명인재육성협의회가 주관했다.

대회는 초·중·고 학생들이 지도교사 1인과 5-6명으로 팀을 이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여상은 고등부에 창업발명동아리 S.O.S(소녀들의 오만가지 생각)에서 1학년 2개팀, 2학년 1개팀이 참가해 모두 1, 2, 3위를 차지했다.

1위 금상은 '5다 주웠다'(1학년 유아인·박서현·고다현·박신예·김민서)팀이, 2위(은상)는 '순백보리'(1학년 이효주·민보은·최유나·류보현·이보경)팀, 3위(은상)는 '이심전심'(2학년 김지원·조은유·김주하·홍도희, 윤정은)팀이 수상했다.

금상을 받은 초·중·고 팀은 오는 7월31일-8월2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지역을 대표해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안정준 광주여상 교장은 "이번 대회는 본교가 발명 특성화고로 지정돼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이며 앞으로도 발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제266회 산학협동포럼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I·이사장 김보곤, 원장 양승학)은 18일 오전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및 광주·전남 지역 학계 기관 단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6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가 '비탈에 선 아이들 동행'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제공〉

보성소방, '고향사랑기부제' 1천200만원 기탁

보성소방서는 18일 "보성군 지역 발전을 위해 1천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보성소방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을 통해 전달됐다.

보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돼 있고, 보성소방서는 이 꾸러미를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설치 지원은 물론, 소방안전점검과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박천조 보성소방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택화재 안전꾸러미'가 널리 보급된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보성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보성소방서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득량만119안전센터의 신축 추진을 포함해 소방안전 관련 정책과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언 기자

광주 서부경찰, 침수 취약지 일제 점검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서구 덕흥동 광신대교 하부도로 등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도로는 집중강우 시 인명이나 차량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현장을 방문한 박종열 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은 대피로 확보 상황과 차량 통제 시설 등을 면밀히 살폈다.

박종열 서장은 "장마철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목포경찰,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캠페인

목포경찰서는 지난 17일 목포가톨릭대학교에서 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경찰서를 비롯해 목포가톨릭대학교,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목포스마일센터,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목포여성상담센터 등 각 기관·단체의 여성일상지킴이 회원들이 함께했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여성일상지킴이와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양수근 담양경찰서장 '인구문제 캠페인' 동참

담양경찰서는 "최근 양수근 서장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은 "인구 문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로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경찰도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본사손님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고민정 〃 홍보기획담당관 ▲김영준 〃 홍보지원팀장

안내

▲웃음박사 김영식 교수의 웃음치료 세미나=
◈강사: 웃음박사 김영식 교수(남부대학교 교수, 국제웃음생명연구소장)
◈일시: 21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광주 광산구 남부대로1(남부대학교 산학관 1층 다목적실)
◈접수 문의: 010-7183-6114(이영숙 원장)
◈참가비: 1인 5만원(신한은행 329-06-505969 이영숙)

부음

▲정경심씨 별세, 최영준(전 광주MBC사장)씨 장모상=발인 20일(금) 오후 12시30분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401호(062-606-4000).

CMYK